

기름병(油瓶)



①



②



③

등잔은 등불을 켜는 데 쓰는 기름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기름을 담는 그릇으로서 병 모양을 지닌 것을 기름병 [油瓶]이라고 한다. 기름병은 집안에서 식용으로 쓰기 위한 것과 등잔의 기름을 담기 위한 것, 그리고 여성의 화장용(化粧用) 등이 있다. 더러 가정에서는 식용을 위한 기름병과 등잔용 기름병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쓰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이 둘을 구분하여 쓴다. 기름병에는 참기름 · 들기름 · 콩기름 · 아주까리기름 · 동백기름 등과 같은 주로 식물성 기름을 넣어두고 사용하였으며, 집안의 부엌이나 대청, 방 등 주거 공간의 여러 곳에 비치해두고 필요에 따라 꺼내 썼다.

기름병은 토기나 오지(질그릇) · 청자 · 백자 · 석간주 등으로 만들었으며, 술을 담는 주병(酒瓶)처럼 몸체가 둥근 형태가 일반적인데 가끔 각진 형태나 편병 모양을 띤 것도 볼 수 있다. 기름병은 주병과 견주어 주둥이가 목보다 넓고 운두가 깊은, 마치 깔때기를 댄 것 같은 모양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병은 크기의 대소에 관계없이 거의 기름 전용으로 쓰는 기름병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주둥이가 넓고 다소 깊게 패인 입은 기름을 담을 때 깔때기의 역할을 하며, 잘룩한 목에 끈을 걸어 집안의 기둥에 매달아 두고 사용하였다.

식용 및 등잔용 기름병과는 별도로 여성의 화장용으로 쓰인 기름병(사진 ①, 사진 ②)은 대체로 그 크기가 매우 작다. 주로 향유(香油)나 머릿기름을 담아 놓고 사용하였는데, 병의 목이 짧고 배가 부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통일신라시대 토기병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그 모양 또한 매우 다양하다. 병의 표면이 매끄럽고 가마에서 구울 때 생긴 자연유(自然釉)가 남아있기도 하며, 종류에 따라서는 촘촘한 점열문(點列紋)이나 돌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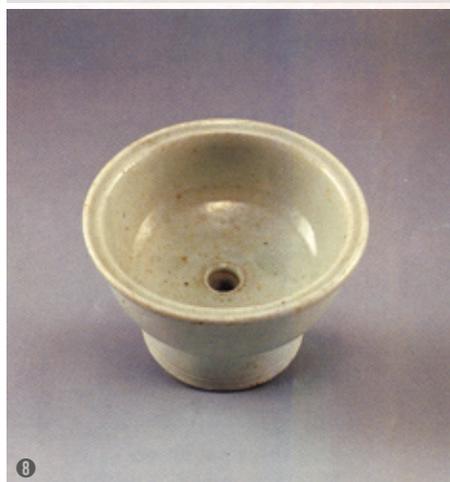


④

사진 ① 토기 기름병[土器油瓶]/통일신라시대/높이 4~5cm/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한양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선>, 1995, 103쪽
 사진 ② 청자기름병[靑瓷象嵌菊花紋油瓶]/고려시대/입지름 2.2cm, 밑지름 3.5cm, 높이 3.5cm/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한양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선>, 1995, 160쪽
 사진 ③ 토기 기름병[土器油瓶]/고려시대/입지름 2.5cm, 밑지름 7cm, 높이 11.5cm/한양대학교박물관 소장/한양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선>, 1995, 145쪽
 사진 ④ 흑갈유기름병[黑褐釉油瓶]/조선시대/입지름 5.3cm, 밑지름 9.3cm, 높이 16.5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79쪽

(突帶紋) 같은 것을 두른 것도 있다. 대중소로 나누어 화장용의 가장 작은 형태의 기름병에는 주로 연지반죽용 기름과 같이 화장품을 반죽하기 위한 기름을 담았을 것으로 보이며, 중간 크기의 기름병에는 얼굴에 발라 살갓을 부드럽게 하거나 윤이 나게 하는 피부 미용용 기름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기름병에는 기름 사용량이 많은 머릿 기름을 담아 썼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화장용의 작은 향유병은 향유의 제조가 쉽지 않고 또한 매우 귀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기름병 또한 양중맞고 아름다운 형태를 취한 것이 많다.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면 기름병 또한 순청자(純靑磁)·상감청자(象嵌靑磁)·철회청자(鐵繪靑磁) 등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이들 몸체에는 꽃무늬나 동물무늬를 새겨 넣어 화사함을 더하거나 길상(吉祥)의 의미를 띠게 하였다. 특히, 고려시대의 기름병은 통일신라시대에 비해 다소 병의 몸통이 넓어지고 운두가 낮아지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은행열매처럼 옆으로 벌어진 몸체와 작은 주둥이를 띤 모습은 화장용 기름병만이 지닌 아름다운 매력이다. 현재 남아있는 수량만을 보면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고려시대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다. 아마도 고려의 불교문화에서 조선의 유교문화로 바뀌면서 여성의 화장 관습 또한 보다 검소한 방향으로 변화를 겪은 결과로 보인다. 



•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1988
-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⑤ 백자철화기름병[白磁鐵華油瓶]/조선시대/입지름 3.2cm, 밑지름 8.7cm, 높이 14.5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79쪽

사진 ⑥ 백자기름병[白磁油瓶]/조선시대/입지름 4.5cm, 밑지름 5.5cm, 높이 9cm/전기박물관 소장

사진 ⑦ 백자기름병[白磁油瓶]/조선시대/높이 23cm/한국등잔박물관 소장/한국등잔박물관, 〈등잔〉, 1999, 74쪽

사진 ⑧ 백자갈때기[白磁漏斗]/조선시대/윗지름 13.5cm, 높이 8.5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79쪽